

‘中風’ 맞은 조선·석유화학 침체 수렁

전남 주력산업 ... 중국과 경쟁에서 밀리고 시설 노후화

현대삼호 7분기 연속 적자, 여수산단 생산·수출 격감

경쟁력 강화 종합 대책 시급

전남의 주력산업인 조선산업의 영업이익 적자 행진이 계속되고, 석유화학산업 역시 생산액과 수출액 급감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업체와의 치열한 경쟁 속에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이 더딘데다 시설 노후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화학산업의 경우 전남도가 ‘기능성 화학 소재산업’을 신산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나 본격적인 예산 투입이 올해부터 시작돼 언제 성과를 낼 지 장담하지 못하고 있는 형

편이다. 전남도는 최근 행정자치부에 605억원이 투입되는 기능성 화학소재 구축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신청한 바 있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대형 조선사 1곳, 중형 7곳, 소형 68곳, 관련 기자재 업체 202곳 등 278개 조선산업 관련 업체가 29958명의 인원을 고용해 지난 2014년 말 6조791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대형 조선사인 현대삼호중공업이 고용 1만4529명, 매출 4조1721억원으로 절반을 점유하고 있다.

조선산업의 매출과 수출은 증가하고 있으나, 문제는 고용 감소와 영업이익의 적

자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매출은 지난해 9월 현재 5조4775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4조8517억원에 비해 11.4%, 수출 역시 지난해 10월 현재 2조7121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9.9%의 증가 추세다.

그러나 고용은 지난해 말 2만9958명에서 2만8542명으로, 1416명이 감소했다. 대한조선만 310명 늘었을 뿐 대불산단 1550명, 현대삼호 329명 등이 줄었기 때문이다. 거기에 전남 조선산업의 ‘절반’인 현대삼호는 지난 2014년 1/4분기부터 지난해 3/4분기까지 7분기 연속 영업이익 적자다. 2년간 영업이익 적자만 8535억원에 달하고 있다.

전남 화학산업의 메카인 여수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10월 현재 전년도 같은 기

간에 비해 생산액이 20.5%, 수출액은 18.7% 급락했다. 2014년 10월까지 74조372억원이었던 생산액은 58조8295억원, 3조1513억 달러였던 수출액은 2조5630억 달러로 크게 줄었다. 국제 유가와 에틸렌, 나프타 등 기초소재 부문의 주요 원자재 가격 하락, 중국 경기지표 부진, 중국 증시 불안 등의 외적 요인과 함께 낮은 부가가치, 다양한 분야의 중소·중견업체가 없는 대기업 중심 시스템 등 내적 요인도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여수국가산단의 경우 1979년 조성돼 시설 노후화는 물론 단지 내 부지 및 각종 기반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데다, 공업용수 공급 체계 등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등 신규 시설 투자도 더딘 상황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알립니다

고수들의 명강연... 지식·교양·지혜의 향연

호남의 리더를 모십니다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2기 졸업식 및 3기 입학식

리더스 아카데미 1·2·3기 주요 강사



최진석



임홍길



황교익



서민



조해련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제4기 원생 모집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고품격 아카데미에 광주·전남 지역 각계 리더들을 모십니다.

광주일보는 오는 3월부터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 유력인사들이 참여하는 1년 과정의 ‘제4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를 시작합니다.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초빙, 강의와 토론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 주요 영역의 시대적 과제를 집중 탐구하는 최고급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호남 최고 전통에 빛나는 광주일보의 브랜드 가치와 영향력에 걸맞은 지역사회 최상의 인적 네트워크를 수강생들에게 구축해 드리겠습니다.

광주일보가 평생 가족으로 모시는 교류의 장에 지역 리더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 인원 : 00명

■ 지원 자격 : 기업 최고 경영진 및 임원, 국회의원·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정부기관 단체장 및 고위관리자, 사회단체장, 법조·의료·교육·문화·예술계 등 전문가

■ 교육 기간 : 3월~12월

■ 강의 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8시30분(호선택사 제공)

■ 원서 교부 및 접수 : 1월31일까지

■ 합격자 발표 및 등록 : 서류전형 후 개별통보

■ 문의 : 광주일보 편집국 (062-220-0670)

光州日報

더민주, 광주 제2당 전략 ‘눈 앞’

13~17일 줄줄이 탈당 예고
강기정 의원 홀로 남을수도

아권의 심장부인 광주에서 제 1당으로 자리매김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이 안철수 의원이 추진중인 가칭 ‘국민의당’에 이어 제2당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11일 광주지역 정가에 따르면 오는 13~17일 사이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의 탈당이 잇따르면서 지역 정치세력들이 국민의당으로 쏠리는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4·13 총선에 출사표를 던질 출마 예상자들도 더민주를 탈당하고 국민의당 후보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더민주의 ‘인물난’이 심화할 전망이다. 광주·전남지역 일부 자치단체장들도 더민주 탈당 움직임을 보이면서 탈당바람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 탈당이후 신당 합류를 놓고 오랜 고민에 들어갔던 권은희(광주 광산을) 의원이 11일 국민의당 합류를 선언하면서 광주에서 더민주를 탈당하고 국민의당으로 옮긴 의원은 김동철(광주 광산갑)·임내현(광주 북구을) 의원을 포함해 3명으로 늘었다. 이어 장병원(광주 남구) 의원이 13일, 박해자(광주 서구갑) 의원이 17일 탈당하고 국민의당으로 옮길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철수 의원 탈당 이후 더민주 탈당 국회의원은 광주지역 국회의원 총 8명 중 5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더민주는 강기정(광주 북구갑) 의원 만이 남게 된다.

이에 따라 더민주의 심장부였던 광주는 13일을 기점으로 제1당 자리가 더민주에



5·18 참배

가칭 ‘국민의당’ 창당을 추진중인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11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 추모탑에서 5월 영령의 넋을 기리며 헌화·분향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서 국민의당쪽으로 넘어가게 된다.

전남지역도 황주홍(장흥·강진·영양)의원에 이어 13일 주승용(여수을)의원 탈당을 시작으로 더민주 의원들의 탈당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호남정치의 맹주 격인 박지원(목포) 전 원내대표의 탈당 결행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과 함께 박 의원이 탈당할 경우 박지원계로 분류되는 이윤석(무안·신안) 의원, 김영록(해남·완도·진도) 의원의 동반 탈당도 점쳐지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날 더민주 수석대변인직을

사퇴하면서 탈당 시기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 뿐 아니라 오는 4·13총선 출마 예정자들의 탈당도 거세지고 있다. 지역 민심이 더민주에 등을 돌리고, 안철수 신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더민주를 탈당해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더민주 김관영(전북 군산) 의원이 탈당하고 국민의당 합류를 선언한데

이어 12일 최원식(인천 계양을) 의원과 권노갑 고문이 탈당할 예정이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가톨릭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062)605-1114

선관위, 예비후보 등록 재개·선거운동 연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선거구 공백’ 사태가 빚어지면서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잠정적으로 허용해온 것을 선거구획정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1일부터 중단된 신규 예비후보 등록·수리 절차도 재개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새로운 국회의원 선거구 구역표가 임박할 때까지 종전 선거구 구역표를 적용해 신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접수 처리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최고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The New C-Class



Mercedes-Benz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삼부대로 1041(화정동) / Tel. 062)226-0001

영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C 200 1,991cc, 1,505kg, 자동7단, 복합연비 12.1km/ℓ (도시연비: 16.8km/ℓ, 고속도로연비: 14.1km/ℓ), 3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44g/km • C 200 Avantgarde 1,991cc, 1,505kg, 자동7단, 복합연비 12.1km/ℓ (도시연비: 16.8km/ℓ, 고속도로연비: 14.1km/ℓ), 3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44g/km • C 220d Avantgarde 2,143cc, 1,625kg, 자동7단, 복합연비 17.4km/ℓ (도시연비: 15.1km/ℓ, 고속도로연비: 21.3km/ℓ), 1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11g/km • C 220d Exclusive 2,143cc, 1,625kg, 자동7단, 복합연비 17.4km/ℓ (도시연비: 15.1km/ℓ, 고속도로연비: 21.3km/ℓ), 1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11g/km • C 250d 4MATIC 2,143cc, 1,730kg, 자동7단, 복합연비 15.5km/ℓ (도시연비: 13.7km/ℓ, 고속도로연비: 18.4km/ℓ), 2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26g/km
본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